

13-01 2013.01.14.

현안^과 과제

■ 2013년 국내 기업 경영 여건과 정책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Executive Summary

□ 2013년 국내 기업 경영 여건과 정책 과제

■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경영

2013년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한은이 2013년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기 둔화는 물론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투자 환경 개선 등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2013년 주요 기업의 국내외 경제 전망

(국내외 경제 전망)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및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2년과 비슷한 3%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부진 및 가계 부채, 환율 하락 등 불안 요인의 상존으로 성장률이 2012년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요 기업들은 2013년 원달러 환율을 평균 1,001~1,100원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기업 경영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1,000원대 이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 평가 및 목표 전망) 주요 기업들의 2012년 경영 성과에 대해서 대체로 예상했던 것보다 미흡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013년 매출과 영업 이익 목표치는 10%이내의 범위에서 2012년보다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전체 투자 규모를 2012년 대비 유지 또는 상향 조정하겠다는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70.9%로 나타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정부에 대한 희망사항) 주요 기업들은 2013년 출범할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서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응답이 43.5%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투자 환경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70.0%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투자지수) 2013년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지수는 투자 성과와 여건 면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투자 심리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사업 투자 성향과 리스크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 기업가정신지수는 111.8에서 120.1로 소폭 상승하였다. 이를 볼 때 주요 기업들은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국내외 경기 둔화로 투자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2013년 국내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이 투자 목표를 상향하고 기업가정신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투자 확대를 유도하도록 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업 편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 등을 추진하여 국내외 경영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I.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경영

-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지연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여건의 악화 우려
 - (세계 경제 침체)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주요국들의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고 글로벌 경제의 장기 침체 우려
 - 2013년에도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올해와 비슷한 3.6%로 전망
 -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위기가 주변국에서 프랑스 등 핵심 국가로 전이 양상
 - 미국은 재정 절벽 협상이 타결이 되었지만 향후 정부지출 축소 방안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경우 미국 경기 급락 우려
 - (국내 경기 둔화와 기업 경영) 2013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국내 경기 회복세의 지연 등으로 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 우려
 - 최근 한국은행은 201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당초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내 경제 회복세 지연에 대한 우려 증대
 - 주요 기업들의 경영 여건 및 재무구조의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세가 지난해 보다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대외 경기의 악화는 곧 우리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연결
 - 기업의 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며 향후 경기 회복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
- 2013년 국내외 경제의 부진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투자 환경 등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II. 2013년 주요 기업의 국내외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전망

○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의 악화와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 가능성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

- (세계 경제 성장률)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2%대 전망에 대한 응답도 다수
 - 성장률이 '3.0%~3.4%' 전망이 각각 41.5%로 가장 많았으나 2%대 전망도 30.8%에 달하여 세계 경제 둔화 지속이 우려

세계성장률	2.5%미만	2.5~2.9%	3.0~3.4%	3.5~3.9%	4.0~4.4%
비중(%)	10.8	20.0	41.5	26.2	1.5

- (중국 경제 성장률) 2013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나 7%대 전망도 다수
 - '8.0%~8.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4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7.4%'과 '7.5%~7.9%'으로 응답한 기업이 각각 21.5%를 차지

중국성장률	7.0%미만	7.0~7.4%	7.5~7.9%	8.0~8.4%	8.5~8.9%	9.0%이상
비중(%)	3.1	21.5	21.5	47.7	4.6	1.5

- (세계 경제 불안 요인) 다수의 기업들은 2013년 '유럽 재정위기 악화'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적
 - '유럽재정위기의 악화'는 39.5%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미국 재정절벽의 현실화'는 20.9%, '환율 불안' 16.3%, '중국 경제 경착륙' 9.3%를 차지

불안요인	유럽재정 위기악화	재정절벽 현실화	환율불안 (환율전쟁)	중국경제 경착륙	보호무역 주의확산	이란발 중동위기 고조
비중(%)	39.5	20.9	16.3	9.3	9.3	3.1

2. 국내 경제 전망

○ 2013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부진' 및 '가계 부채', '환율 하락' 등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여 2012년보다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국내 경제 성장률) 2013년 한국 경제는 3%대 초반 또는 2%대 후반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음
- 2013년 성장률이 3.0%~3.4% 수준일거라고 응답한 기업은 40.0%였고, 2.5%~2.9% 수준일거라고 응답한 기업은 30.8%로 나타남

국내 경제 성장률	2.0%미만	2.0~2.4%	2.5~2.9%	3.0~3.4%	3.5~3.9%
비중(%)	1.5	18.5	30.8	40.0	9.2

- (국내 경제 불안 요인) 2013년에 한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의 부진'으로 응답한 기업이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계부채' 18.5%, '환율 하락' 15.3%의 순으로 나타남

불안 요인	가계 부채	환율 하락	유가 급등	물가 불안	투자 부진	부동산 침체	고용 부진	양극화 심화	미국 및 세계 경기 부진	중국경제 경착륙
비중(%)	18.5	15.3	4.0	2.4	7.3	8.9	4.8	4.8	27.4	6.5

○ 2013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 1,001~1,100원, 국제유가는 배럴당 101~110달러, 금리는 3.0~3.9%를 전망.

- (환율 전망) 2013년 원/달러 환율을 '1,001~1,100원'로 전망한 기업이 76.6%로 가장 많았고, 1,101~1,200원이 13.8%, 901원~1,000원은 3.1%를 차지
- 이를 볼 때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원화 환율이 최소한 1,000원 대 이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평가됨

원달러 환율	901~1,000원	1,001~1,100원	1,101~1,200원
비중(%)	3.1	76.6	13.8

- (유가 전망) 2013년 국제유가는 '101~110달러'로 전망한 기업이 5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111~120달러'로 전망한 기업은 30.2%로 나타남
- '100달러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1.1%, '120달러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은 1.6%에 불과

국제유가 (배럴당)	81~90달러	91~100달러	101~110달러	111~120달러	121~130달러
비중(%)	1.6	9.5	57.1	30.2	1.6

- (금리 전망) 2013년 3년 만기 회사채 AA- 금리를 '3.0~3.9%'로 예상한 기업들이 79.7%로 가장 많았음
- '4.0%~4.9%'로 응답한 기업은 18.8%, '3.0%미만'으로 응답한 기업은 1.6%에 불과했음

회사채 금리	3.0% 미만	3.0~3.9%	4.0~4.9%
비중(%)	3.1	76.6	13.8

3. 2013년 투자 계획 및 여건 전망

- 2012년 경영 성과는 대체로 미흡했으며, 2013년 매출과 영업, 투자 목표는 2012년보다 다소 상향할 것으로 조사
- (2012년 경영 성과) 매출, 이익 등 2012년 경영 성과가 '예상보다 나빴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 중 54.7%를 차지하여 경영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남
- '예상에 다소 못 미쳤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45.3%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예상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32.8%를 차지한 반면, '예상보다 다소 상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5%에 불과

2012 경영성과	예상보다 매우나쁨	예상에 다소 못미침	예상수준임	예상보다 다소 상회
비중(%)	9.4	45.3	32.8	12.5

- (성과 부진 요인) 2012년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이유가 '세계 경기 침체'라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38.6%로 가장 높았고, '내수 부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4.1%로 뒤를 이음

경영성과 부진 이유	세계경기 침체	내수 부진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부진	기타
비중(%)	38.6	34.1	11.4	6.8	9.1

- (2013년 매출 목표) 2012년 대비 '1%~10%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67.7%, '11~19% 상향' 6.5%, '20% 이상 상향' 4.8%로 나타남
- 2012년 매출 목표를 '2012년 수준(0%)으로 유지'하겠다고는 기업은 9.7%에 불과했으며, '10%이내로 축소'하겠다고는 기업은 8.1%, '20%이내 축소'하겠다고는 기업은 3.2%로 나타남

2013년 매출목표	11~19% 축소	1~10% 축소	2012년과 동일(0%)	1~10% 상향	11~19% 상향	20%이 상 상향
비중(%)	3.2	8.1	9.7	67.7	6.5	4.8

- (2013년 투자 목표) 2013년 전체 투자 규모가 2012년 대비 '1~10%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1%~19% 상향'이 3.2%, '20% 이상 상향'이 3.2%로 나타남
- 반면 전체 투자 규모를 2012년 대비 '1~10% 축소'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17.7%, 20% 이상 축소하겠다고는 기업도 11.3%로 나타남

2013년 투자규모	20%이상 축소	1~10% 축소	2012년과 동일(0%)	1~10% 상향	11~19% 상향	20%이 상 상향
비중(%)	11.3	17.7	22.6	41.9	3.2	3.2

- (자금 사정) 업체의 자금 사정이 '2012년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들의 비중이 56.9%로 가장 많았고,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21.5%,
 - 한편 자금 사정이 2012년보다 '다소 악화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20.0%, '크게 나빠질 것 같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5%로 나타남

2013년 자금사정	크게 나빠질 것	다소 악화될 것	2012년 수준과 동일	호전될 것
비중(%)	1.5	20.0	56.9	21.5

- (내수 전망) 2013년 해당 업종의 내수시장 규모가 '2012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50.0%에 달함
 - 내수 시장이 2012년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9.7%에 달하는 반면, 축소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4%로 확대를 예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해당업종의 내수 규모	20%이상 축소	11~19% 축소	1~10% 축소	2012년 수준	1~10% 확대	11~20% 확대
비중(%)	4.7	1.6	14.1	50.0	28.1	1.6

- (2013년 영업 이익 전망) 2012년 대비 '1~10% 상향'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38.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2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7.1%를 나타냄
 - 반면 '10% 정도 축소'하겠다는 기업은 1.6%, '20% 이상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6%에 불과

2013년 영업이익	20%이상 축소	11~19% 축소	2012년과 동일(0%)	1~10% 상향	11~19% 상향	20%이상 상향
비중(%)	1.6	1.6	37.1	38.7	9.7	11.3

4. 2013년 새정부에 바라는 점

○ 주요 기업들은 새정부에 대해 경기부양을 가장 많이 주문했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요구.

- (새정부 정책 과제) 새정부 경제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응답한 기업이 43.5%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 17.4%, '환율의 안정화'가 15.7%로 나타남

경제정책 방향	경기 부양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관리	경제민주화	부동산 활성화	저소득층 복지확대	환율 안정화
비중(%)	43.5	7.0	17.4	7.8	0.9	7.0	0.9	15.7

- (투자 제고 위한 과제) 기업의 투자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을 지적한 기업이 70.0%로 가장 다수
 · '세금 감면 등 조세 부담 완화' 10.0%, '기업 자금 지원' 6.7%, '반기업정서 해소' 6.7%, '노사관계 안정' 6.7%로 나타남

투자환경제고 위한 정부 정책과제	규제완화	조세부담 완화	기업자금 지원	반기업정서 해소	노사관계 안정
비중(%)	70.0	10.0	17.4	7.8	0.9

- (일자리 창출 위한 정부 과제) 향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서는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40.7%로 가장 높았고, '규제 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34.5%로 나타남

일자리 창출대책	신성장동력 확보	규제완화 및 투자 인센티브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소기업육성 및 강화	벤처기업 활성화
비중(%)	40.7	34.5	4.4	3.5	15.0	0.9

- (경제민주화 시각)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영이 위축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76.3%로 나타남
 · 반면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5.3%, '오히려 경영 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8.5%로 나타남

경제민주화	경영이 크게 위축될 것	어느정도 위축될 것	별영향 없을 것	경영여건이 좋아질 것
비중(%)	27.1	49.2	15.3	8.5

II. 기업투자 현황 조사 결과

1.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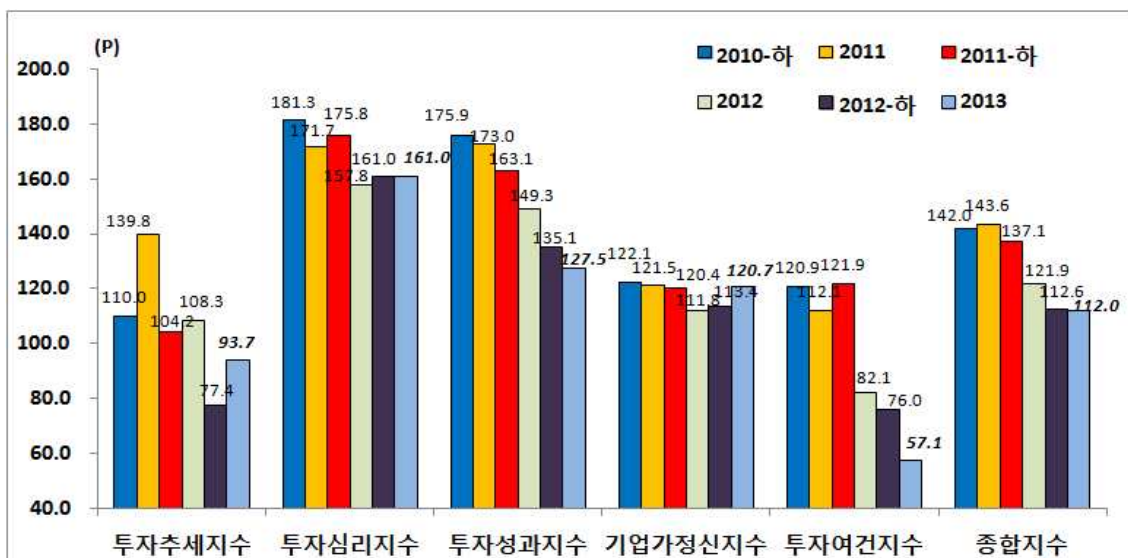
- (종합지수) 2013년 100대 기업들의 종합투자지수는 지난 2012년 상반기 조사보다 소폭 하락하여 역대 조사 중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
 - 기업들의 투자 추세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와 투자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2013년 100대 기업의 종합투자지수는 6개월 전의 112.6비해 소폭 하락한 112.0을 기록
 - 2013년 투자 추세 증가 : 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늘렸기 때문에 투자추세지수는 93.7을 기록하여 지난 조사 때의 77.4보다 증가.
 - 2012년에 진행되고 있는 투자가 2011년보다 증가되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54.0% 차지
 - 그러나 2013년에 2012년보다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39.7%에 불과
 - 2013년 투자 여건 악화 전망 : 투자여건지수는 6개월전의 76.0보다 하락한 57.1을 기록하여 2011년 이후 121.9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
 -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십니까?'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80.6%로 나타남
 - 또한 '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62.3%를 차지
 - 2013년 투자 성과 하락 : 투자성과지수는 중간값 100을 상회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지만 6개월전 135.1보다 하락한 127.5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투자 성과와 개선에 대한 기대감 약화
 - '2012년 투자 대비 성과는 좋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기업이 58.7% 차지
 - 향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은 68.8%를 차지함

- 2013년 투자심리 정세 : 투자심리지수는 161.0으로 6개월전과 동일하게 나타나 기업들의 투자심리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84.4%를 차지
 - 한편,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는 지속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76.6%로 나타남
- 2013년 기업가 정신지수 상승 : 6개월 전 111.8보다 다소 상승한 120.7을 기록.
 - 수익이 기대되더라도 투자 리스크가 큰 것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기업들이 70.3%를 기록
 - 그러나 지금이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82.1%에 달함

< 기업투자 환경 조사 결과 >

구 분	투자추세지수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 정신지수	투자여건지수	종합지수
지 수	93.7	161.0	127.5	120.7	57.1	112.0

<부문별 기업투자지수 추이>



주 : 1) 2010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지수 조사는 2010년 6월 14~18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2) 2011년에 대한 투자지수 조사는 2010년 12월 6~10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3) 2011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지수 조사는 2011년 6월 20~2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4) 2012년에 대한 투자지수 조사는 2011년 12월 7~1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5) 2012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지수 조사는 2012년 6월 11~15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6) 2013년에 대한 투자지수 조사는 2012년 12월 10일~1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

2. 산업별 결과

① 투자추세지수

○ (자동차와 물류업 호조) 투자추세지수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물류는 호조를 보이는 한편, 조선, 건설, 금융은 크게 하락

- 물류업과 자동차의 투자추세지수는 각각 200.0, 150.0을 기록하여 호조세
- 그러나 조선, 건설, 금융업은 모두 0.0을 기록하고 있어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차별화) 2013년에 조선, 철강, 건설, 금융업의 투자 전망이 매우 어두운 가운데, 물류, 자동차, 제약/바이오의 투자 전망은 긍정적

- 2012년 투자가 2011년보다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철강(100%), 자동차(100%), 물류(100%)임
- 2013년 투자규모를 2012년보다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감소하는 물류(100%), 자동차(75.0%), 제약/바이오(60.0%) 등임

② 투자심리지수

○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투자심리는 긍정적)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투자심리는 긍정적으로 나타남

-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투자심리지수가 중간값 100을 상회, 투자심리는 대체적으로 밝음
- 건설 산업의 투자심리지수는 60.0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값을 기록
- 건설 산업의 경우, 현재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40.0%의 기업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가 악화될 경우 20.0%의 기업만이 투자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응답

③ 투자성과지수

- (금융업 투자성과 최악) 금융업의 투자성과가 가장 낮은 가운데 건설, 식품 등의 산업은 투자성과지수가 중간값 100을 하회
 - 금융업의 투자성과지수는 0.0을 기록하여 가장 낮은 값을 기록했고, 건설업 40.0, 식품업 66.6을 기록
 - 한편,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투자성과지수가 180.0을 기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외에 석유화학 177.8, 자동차, 175.0, 철강 175.0 등으로 투자성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④ 기업가정신지수

- (제약/바이오산업 기업가정신 최상) 식품, 제약/바이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이 타 산업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평가
 -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업가정신지수는 160으로 나타나 산업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품 146.7, 전기·전자 146.1의 순으로 나타남
 -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식품은 66.7%, 전기·전자 61.5%, 제약/바이오 60.0%로 나타나 타 산업에 비해 리스크 수용력이 높게 나타났음
- (기업가정신이 가장 낮은 산업은 금융) 금융 산업의 기업가정신지수는 0.0에 불과하여 기업가정신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
 - 금융산업의 경우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또한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이 기대된다면 투자하겠다는 기업 비중도 0.0%로 나타나, 타 산업에 비해 리스크 수용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

⑤ 투자여건지수

○ (철강, 조선, 식품 투자 여건 불만족) 철강, 조선, 식품 산업이 투자여건지수가 0.0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역시 투자여건지수가 25.0에 불과하여 투자 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

- 현재의 투자 여건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철강, 조선, 식품, 금융, 물류 산업은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
- 또한 전기·전자 91.7%, 건설, 80.0%, 제약/바이오 80.0%, 자동차 75.0%로 종합지수가 대체로 높았던 산업들도 현재 투자 여건에 대한 불만족은 높게 나타남
- 향후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철강, 자동차, 금융, 식품 등은 모든 기업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향후 투자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종합투자지수 >

개별항목	투자추세지수	투자심리지수	투자성과지수	기업가정신	투자여건지수	종합지수
조선	0.0	125.0	100.0	100.0	75.0	80.0
철강	100.0	150.0	175.0	100.0	0.0	105.0
전기전자	100.0	169.2	119.8	146.1	50.0	117.0
석유화학	100.0	188.9	177.8	122.2	105.6	138.9
건설	0.0	60.0	40.0	80.0	60.0	48.0
자동차	150.0	200.0	175.0	100.0	25.0	130.0
물류	200.0	100.0	100.0	100.0	100.0	120.0
유통	125.0	125.0	175.0	75.0	66.6	113.3
금융	0.0	100.0	0.0	0.0	0.0	20.0
식품	50.0	150.0	66.6	146.7	0.0	82.7
제약/바이오	140.0	200.0	180.0	160.0	60.0	148.0
IT/통신	125.0	200.0	112.5	125.0	87.5	130.0

주 : 음영이 들어간 것은 각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산업임.

Ⅲ. 시사점

- 정부는 규제 완화 등 투자 여건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기업 스스로도 R&D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 차원) 기업의 투자 의욕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높은 반면 투자 여건이 여전히 기업의 투자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긴급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함
 - 특히 조선, 철강, 건설 등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 마련
 - 경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태세를 마련하고 글로벌 위기 속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한 신시장 개척 노력 강화
 -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유망 글로벌 기업을 양성
 - (기업 차원) 불황속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적극 추진
 -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성장세를 유지하는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미국, 중국 등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 IT와 제조업 등 기존의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
 - 차세대 유망 업종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 및 연속성 유지

담당 연구원

【작 성】 최성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2072-6223)

【설문조사】 홍유림 전문연구원 (ylhong@hri.co.kr, 2072-6243)

<첨부> 1. 기업투자지수 산출 방법

○ 기업투자지수의 정의와 구성

- (정의) 기업투자지수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환경, 투자의지, 투자성과 등에 대한 기업의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지수화 하여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됨
- (목적)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투자에 대한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측정하여 관련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

○ 기업투자지수 계산 방법

- 투자지수 계산 방법
 - 개별 투자지수 = '그렇다' 응답 비중 - '그렇지 않다' 응답 비중 + 100
 - 예: '그렇다'가 60% 이고 '그렇지 않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개별 투자 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1년 12월 7일 ~ 2011년 12월 14일(6일간)
- 조사 대상 : 매출액 기준 국내 10개 업종 100대 기업
- 조사 내용 : 하반기 경기 판단, 경영전망, 투자지수 관련 내용
- 응답 기업 : 67개 기업 (응답률 67%)

○ 기업투자지수의 설문문항

구분	질문	답변
투자추세	올해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작년보다 증가된 규모입니까?	(1)그렇다
지수	내년에는 올해보다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입니까?	
투자여건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십니까?	(2)그렇지 않다
지수	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심리	현재의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지수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는 지속하시겠습니까?	
투자성과	올해 하반기 투자 대비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	(2)그렇지 않다
지수	향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기업가	지금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	(2)그렇지 않다
정신지수	추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시겠습니까?	